

# 단어빈도가 명사정의하기에 미치는 효과

## The Effect of Word Frequency on Noun Definitions

이 찬 종\*  
(Chan-Jong Lee\*)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접수일자: 2008년 7월 1일; 채택일자: 2008년 7월 25일)

본 연구는 한국어에서 단어빈도가 명사 정의하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명사의 친숙도와 명사의 정의하기를 분석하였다. 의미범주를 "사용/목적," "묘사," "관련/관계," "부분 설명," "설명," "오류," "부분설명-속성," "부분설명-특정 분류," "부분설명-비특정 분류," "설명-특정 분류," "설명-비특정 분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빈도 명사보다 고빈도 명사의 경우 더 친숙도를 보였고 분류명사나 속성의 의미범주를 사용하는 "설명"의 경우 저빈도 명사보다 고빈도 명사의 경우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분류명사와 속성의 의미범주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고 오류반응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명사 정의하기에서 명사의 출현빈도가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단어빈도, 명사정의하기, 단어친숙도, 고빈도, 저빈도

**투고분야:** 말소리 생성 및 인지 분야 (12.4)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at word frequency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noun definitions in Korean. The experimental group was 80 students from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University. They rated familiarity and wrote definitions for nouns. Noun definitions were analyzed with semantic categories such as "use/purpose," "description," "association/relation," "partial explanation," "explanation," "error," "partial explanation-attribute," "partial explanation-specific class," "partial explanation-nonspecific class," "explanation-specific class," "explanation-nonspecific class." As a result, they showed familiarity for high-frequency nouns. "EXPL" categories that use class terms or critical attributes were used more frequently in definitions of high-frequency nouns compared with low-frequency nouns. They increased with age and errors decreased with age. Word frequenc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noun definitions.

**Keywords:** Word frequency, Noun definition, Word Familiarity, High frequency, Low frequency

**ASK subject classification:** Speech Production and Perception (12.4)

### I.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명사 정의하기 (noun definition)에서 단어빈도 (word frequency)가 명사 정의하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단어빈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단어산출과 단어인식 그리고 음운습득 (phonological acquisition)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2]. 단어정의하기와 관련하여 Marinellie and Johnson (2003)는 단어빈도가 형용사 정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1]. Marinellie and Johnson (2006)는 단

어빈도가 명사와 동사에 미치는 효과의 발달적 연구를 하였다 [2]. 국내에서는 박경애·김영태 (2000) [3], 신지원·황민아·박은숙 (2002) [4], 김화수 외 (2006) [5]는 단어정의하기와 관련된 연구를 행하였지만 아직까지 단어의 빈도가 단어의 정의하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았다.

정의하기 (definition)란 단어에 대한 의미를 다른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다.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의할 단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정의에 사용되는 단어가 두뇌사전에 있어야 한다 [4]. 단어 정의하기 정보는 언어의 의미발달을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언어능력검사에서 언어발달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의하기 능력은 학령기 아동의 인지발달, 언어발달,

책임저자: 이 찬 종 (cjlee@kangwon.ac.kr)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인문대2호관 309호 인문과학연구소  
(전화: 033-250-7252; 팩스: 033-250-7257)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간능력의 지표 (index of human competencies)”이다 [6].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의하기 능력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경우 잘못된 의사소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명사정의하기의 발달과 단어빈도와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고빈도어와 저빈도어가 명사정의하기에 미치는 영향, 정의하기 반응에 나타난 의미범주들과 단어빈도와의 상관관계, 명사의 빈도에 따라서 명사의 정의하기가 발달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 II.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강원도 춘천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생 각 20명 전체 80명이다. 각 남녀 10명씩 20명으로 전체 80명을 대상으로 하여 언어 및 청각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피험자 집단의 연령분포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 information.

	연령		성별		인원 (단위명)
	평균	남	여		
초등 4년	9.7	10	10		20
중등 1년	12.6	10	10		20
고등 1년	15.4	10	10		20
대학생	20.7	10	10		20
전체	14.6	40	40		80

### 2.2. 검사도구 (정의하기 검사 단어)

명사에 사용된 단어는 고빈도어 3개 (자동차, 귀, 집)와 저빈도어 3개 (나침반, 다이아몬드, 짐)이다. 이 단어는 모두 국립국어원 [7]의 코퍼스에서 전체 5,503,107개의 단어에서 추출하였다. 이 때 단어정의하에서 분류명사의 사용을 살펴보기 위해 분류명사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고유명사와 복수명사 그리고 다의어 명사도 제외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빈도어는 100만 단어 당 70 이상의 빈도를 갖고, 저빈도어는 백만 단어 당 30 이하의 빈도를 갖는 단어를 의미한다 [2]. 이 논문에서 사용된 고빈도어와 저빈도어의 평균빈도는 각각 고빈도의 경우 6734.33, 저빈도어의 경우 68.66이었다.

### 2.3. 연구 절차

#### 2.3.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 및 강원도 춘천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수집하였다. 검사는 대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교실에서 이루어졌고 대학교는 교실 또는 개별적 장소에서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대학생의 경우 일대일로 과제를 수행하게 하거나 교실에서 과제를 수행하게 했고 나머지 그룹은 학교 교실에서 정의하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평가지를 나누어 주고 평가할 내용을 설명하였다. 평가지에 개인정보를 기록하게 했고, 무작위로 배열된 단어목록에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하게 한 다음 정의할 단어에 대한 친숙도 검사를 행하였다. 단어의 친숙도 (familiarity) 검사에서 연구자는 피험자가 각 단어의 친숙도를 1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에서 7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듣는다)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다음의 예를 들려주고 ‘개’는 친숙도면에서 7점수를, 그리고 ‘강모’는 친숙도면에서 1의 점수를 부여하게 했다. 친숙도의 점수를 줄 때 참여자들에게 “다음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듣는가?”에 대한 척도임을 강조하였다.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먼저 단어정의의 예를 들려주고 각 실험단어에 대해 정의하게 하였다. 이 때 [2]에 따라 단어 순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단어정의하기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단어정의를 먼저 한 후 친숙도 척도를 나중에 하게 하였고, 다른 그룹은 친숙도 척도를 먼저 실시하고 난 후에 단어정의를 하게 하였다. 정의할 단어를 크게 읽어주고 과제를 시행하였다. 과제수행시간은 대략 20분에서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 2.3.2. 자료평가

본 연구에서는 명사정의하에서 [2]의 분석 기준을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범주를 사용하였다.

- 1) 사용/목적 (use/purpose) (U/P)
- 2) 기술 (description) (DES)
- 3) 관련/관계 (association/relation) (A/R)
- 4) 부분적 설명 (partial explanation) (PE)
- 5) 설명 (explanation) (EXPL)
- 6) 오류 (error) (ERR)

이 범주들은 명사의 모든 단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주

들이고 기존의 정의하기 연구에서도 이 범주들을 사용하였다 [2]. 각 실험단어는 [8]의 '연세한국어사전'의 정의를 따랐다. 이 사전에서 정의된 내용을 참조하여 분류명 사용어 (class term)와 속성 (attribute)이 사용되었다. 먼저 분류명사용어를 '특정'과 '비특정'으로 나누었다. 분류명사용어가 사용될 때는 "부분설명-특정분류" (PE-SC) 또는 "부분설명-비특정분류" (PE-NSC)로 분류하였다. 또 다른 요소인 속성 (attribute)을 사전을 참조하여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집' 단어의 경우 첫 번째 요소인 분류명사용어는 '사물, 건물, 구조, 안식처'에 해당되고 두 번째 요소인 속성은 "안에 산다, 집으로 사용된다."의 요소이다. 각 단어에 대한 정의반응에 대해 다음의 범주에 따른 빈도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검'의 경우 정의하기 반응이 "싸우기 위해 사용되는 것"의 경우 두 의미범주를 지닌다. '싸우기 위해 사용되는'은 U/P 범주이고 '것'은 속성이 없는 불특정한 분류명사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PE-NSC의 의미범주를 갖는다. 따라서 이 경우 두 가지 의미범주인 U/P와 PE-NSC를 지닌다. 만일 검의 경우 "긴 날을 지닌 무기"라고 정의한 경우에는 '무기'의 특정 분류명사와 '긴 날'의 속성으로 단어를 정의했으므로 이 경우에는 EXPL-SC의 의미범주를 갖는다. 표 2는 정의하기 반응의 범주에 따른 예이다.

표 2. 정의하기 반응 범주  
Table 2. Response categories for noun definitions.

정의하기 반응 범주	예
Use/purpose (사용/목적): 가능	자동차 "도로 위를 달린다" 검: "작과 싸운다"
Description (묘사): 사이즈, 모양, 느낌, 소리, 치수, 위치/순서, 부분, 색깔, 재료	검: "길다" 나침반 "둥글다" 귀: "두개이고 알량밀량하다"
Association/relation (관련/관계): 범주관련, 특정한 실례, 자극단어의 형태, 관련된 결과	자동차 "트럭"
Partial explanation (부분적 설명) - 특정 분류 (specific class)	자동차 "탈것" 검: "무기"
Partial explanation (부분적 설명) - 비특정 분류 (nonspecific class)	나침반 "사물" 자동차 "빠른 것"
Partial explanation (부분적 설명) - 속성 (attribute)	귀: "듣는 데 사용"
Explanation (설명) - 특정 분류 (specific class)	검: "긴 날이 있는 무기"
Explanation (설명) - 비특정 분류 (nonspecific class)	검: "긴 날이 있는 사물"
Error (오류): 무반응, 부정확한 의미, 자극단어의 반복	나침반 "나침반"

Note. SC=특정분류, NSC=비특정분류

### 2.3.3. 신뢰도

정의하기 반응의 의미범주유형 평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그룹에서 3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평가자간 신뢰도를 시행하였다. 언어학 전공대학원생에게 의미범주평가를 훈련시킨 후 각 단어의 정의반응을 하게 한 결과 정의반응의 일치도는 95%였다.

## III. 결과

### 3.1. 친숙도 분석 결과

표 3. 친숙도 분석  
Table 3. Analysis of familiarity.

단어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검정 통계량 (t)	유의 확률
저빈도	2.76	1.792	1	7	-20.55	0.000
고빈도	6.00	1.656	1	7		

단어의 친숙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단어빈도에 따른 친숙도의 t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저빈도의 평균은 2.76 표준편차는 1.792이며, 고빈도의 평균은 6.00 표준편차는 1.656이다 (t=-20.55, p<.001). 즉, 저빈도와 고빈도간의 친숙도는 서로 차이가 있고 중요한 효과가 낱말 빈도임을 알 수 있었다.

표 4. 연령별 고빈도어 친숙도  
Table 4. Familiarity for Age Group×High-Frequency Nouns.

연령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검정 통계량 (F)	유의 확률
초4	5.87	1.855	1	7	0.456	0.713
중1	5.83	1.787	1	7		
고1	6.13	1.467	1	7		
대학생	6.07	1.635	1	7		

단어빈도가 고빈도인 경우 연령에 따른 친숙도 분석 결과 초등4년의 평균은 5.87 표준편차는 1.855이며, 중등1년의 평균은 5.83 표준편차는 1.787이며, 고등1년의 평균은 6.13 표준편차는 1.467이며, 대학생의 평균은 6.07 표준편차는 1.635이다. 연령별로 ANOVA분석을 하였다 (F(3,79)=.456, p=.71). 단어빈도가 고빈도인 경우 연령간의 친숙도는 서로 차이가 없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표 5. 연령별 저빈도어 친숙도

Table 5. Familiarity for Age Group×Low-Frequency Nouns.

연령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검정 통계량 (F)	유의 확률
초4	3.45	2.266	1	7	6.469	0.001
중1	2.07	1.351	1	7		
고1	2.67	1.434	1	7		
대학생	2.83	1.729	1	7		

단어빈도가 저빈도인 경우 연령에 따른 친숙도 분석 결과 초등4년의 평균은 3.45 표준편차는 2.266이며, 중등1년의 평균은 2.07 표준편차는 1.351이며, 고등1년의 평균은 2.67 표준편차는 1.434이며, 대학생의 평균은 2.83 표준편차는 1.729이다 ( $F_{(3,79)}=6.5, p<.01$ ). 단어빈도가 저빈도인 경우 연령간의 친숙도는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어빈도가 저빈도어인 경우 초등학교생을 제외하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저빈도어의 친숙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 3.2. 전체분석 결과

단어의 빈도에 따른 정의반응범주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시행하였다. 표 6은 명사의 고빈도와 저빈도의 연령집단에 따른 정의반응범주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표이다. 종속변수에서 기본범주의 빈도가 높은 반응범주들은 U/P, EXPL, DES, PE이었고, A/R과 ERR은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하위범주의 경우 빈도는 EXPL-SC, EXPL-NSC, PE-SC, PE-A, PE-NSC의 순서로 나타났다. 고빈도 명사의 경우 기본범주에서 U/P, EXPL, DES, PE, A/R, ERR의 순서로 나타났고 하위범주에서는 EXPL-NSC, EXPL-SC, PE-NSC, PE-SC, PE-A의 순서로 나타났다. 저빈도 명사의 경우 기본범주에서 DES, U/P, EXPL, PE, ERR, A/R의 순서로 나타났고, 하위범주의 경우 EXPL-SC, EXPL-NSC, PE-SC, PE-A,

표 6. 명사정의 반응범주 종속변수의 평균

Table 6. Means for dependent variables in noun definitions.

종속변수		초4		중1		고1		대학생	
		고빈도	저빈도	고빈도	저빈도	고빈도	저빈도	고빈도	저빈도
U/P	M	2.55	1.55	2.20	1.75	2.25	1.45	2.30	1.45
	SD	0.51	0.69	0.77	0.72	0.79	0.61	0.73	0.69
DES	M	0.65	1.20	1.40	1.60	1.25	1.55	1.25	2.10
	SD	0.67	0.77	0.75	0.88	0.91	0.88	0.78	0.79
A/R	M	0.00	0.05	0.35	0.35	0.05	0.20	0.10	0.00
	SD	0.00	0.22	0.49	0.49	0.22	0.41	0.45	0.00
PE	M	0.95	1.80	0.65	1.00	0.55	0.70	0.45	0.75
	SD	0.89	0.77	0.81	0.79	0.69	0.80	0.61	0.64
EXPL	M	1.70	0.45	2.35	1.90	2.45	1.80	2.50	1.95
	SD	0.98	0.69	0.88	0.85	0.69	0.79	0.61	0.69
ERR	M	0.20	0.20	0.10	0.20	0.05	0.35	0.00	0.00
	SD	0.41	0.41	0.31	0.52	0.22	0.39	0.00	0.00
PE-A	M	0.55	0.60	0.15	0.40	0.05	0.15	0.15	0.20
	SD	0.83	0.82	0.49	0.50	0.22	0.36	0.36	0.41
PE-SC	M	0.15	0.80	0.30	0.25	0.20	0.40	0.10	0.35
	SD	0.37	0.62	0.47	0.55	0.41	0.50	0.30	0.49
PE-NSC	M	0.25	0.40	0.30	0.35	0.30	0.15	0.20	0.20
	SD	0.44	0.59	0.57	0.58	0.57	0.37	0.41	0.41
EXPL-SC	M	0.30	0.15	0.95	1.05	1.20	1.20	1.50	1.45
	SD	0.47	0.37	0.95	0.78	0.83	0.83	0.83	0.78
EXPL-NSC	M	1.40	0.30	1.40	0.85	1.25	0.60	1.00	0.50
	SD	0.94	0.47	1.14	0.81	0.72	0.59	0.73	0.61

PE-NSC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6은 각 집단 응답자들의 명사정의에 대한 종속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표이다.

그림 1은 명사의 정의반응의 평균을 연령별로 단어의 빈도에 따라 나타낸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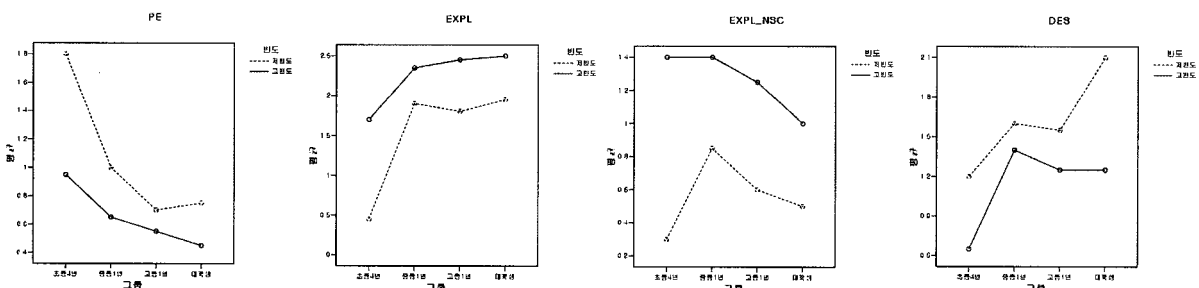


그림 1. 명사정의 각 반응값의 연령간의 평균

Fig. 1. Means for response categories "PE, EXPL, EXPL- NSC, DES" for noun definitions.

3.2.1. 연령그룹 효과 분석결과

표 7. 연령그룹 효과

Table 7. Age Group Effects.

	제시유형 재조합	자유도	평균제곱	검정통계량 (F)	유의확률 (P)
U/P	1.205	3	0.342	0.714	0.545
DES	12.350	3	4.117	6.282	0.000
A/R	2.625	3	0.875	7.389	0.000
PE	15.569	3	5.190	9.114	0.000
EXPL	35.475	3	11.825	19.622	0.000
ERR	1.075	3	0.358	2.606	0.054
PE-A	5.219	3	1.740	5.962	0.001
PE-SC	1.419	3	0.473	2.111	0.101
PE-NSC	0.519	3	0.173	0.684	0.563
EXPL-SC	34.550	3	11.517	20.595	0.000
EXPL-NSC	3.025	3	1.008	1.668	0.176

연령그룹별 효과에 대한 검정결과 U/P는 ( $F_{(3,79)}=0.714$ ,  $p=.545$ )로서, ERR는 ( $F_{(3,79)}=2.606$ ,  $p=.054$ )로서, PE-SC는 ( $F_{(3,79)}=2.111$ ,  $p=.101$ )로서, PE-NSC는 ( $F_{(3,79)}=0.684$ ,  $p=.563$ )로서, EXPL-NSC는 ( $F_{(3,79)}=1.668$ ,  $p=.176$ )로서 유의수준 .05하에서 연령그룹별 효과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DES는 ( $F_{(3,79)}=6.282$ ,  $p<.001$ )로서, A/R는 ( $F_{(3,79)}=7.389$ ,  $p<.001$ )로서, PE는 ( $F_{(3,79)}=9.114$ ,  $p<.001$ )로서, EXPL는 ( $F_{(3,79)}=19.622$ ,  $p<.001$ )로서, PE-A는 ( $F_{(3,79)}=5.962$ ,  $p<.001$ )로서, EXPL-SC는 ( $F_{(3,79)}=20.595$ ,  $p<.001$ )로서 유의수준 .05하에서 연령그룹별 효과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각 연령그룹별 효과에 차이가 있는 연령그룹간의 비교는 사후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DES는 집단군 1에 초등4년 (평균=0.93), 집단군 2에 고등1년 (평균=1.40), 중등1년 (평균=1.50) 그리고 대학생 (평균=1.68)이 분류되어, 초등4년이 DES가 적게 나타났다. EXPL은 집단군 1에 초등4년 (평균=1.08)이 집단군 2에 중등1년 (평균=2.13), 고등1년 (평균=2.13) 그리고 대학생 (평균=2.23)이 분류되어, 초등4년 집단이 EXPL이 적게 나타났다. EXPL-SC는 집단군 1에 초등4년 (평균=0.23)이 집단군 2에 중등1년 (1.00), 고등1년 (1.20)이 집단군 3에 대학생 (평균=1.48)이 분류되어, 초등4년 집단군에서 EXPL-SC이 적게 나타났고 대학생 집단군에서 EXPL-SC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3.2.2. 단어빈도 효과 분석결과

표 8. 단어빈도 효과

Table 8. Word frequency effects.

	제시유형 재조합	자유도	평균제곱	검정통계량 (F)	유의확률 (P)
U/P	24.025	1	24.025	50.231	0.000
DES	9.025	1	9.025	13.773	0.000
A/R	0.025	1	0.025	0.211	0.647
PE	6.806	1	6.806	11.953	0.001
EXPL	21.025	1	21.025	34.889	0.000
ERR	0.400	1	0.400	2.909	0.090
PE-A	0.506	1	0.506	1.735	0.190
PE-SC	2.756	1	2.756	12.304	0.001
PE-NSC	0.006	1	0.006	0.025	0.875
EXPL-SC	0.025	1	0.025	0.045	0.833
EXPL-NSC	19.600	1	19.600	32.418	0.000

단어빈도별 효과에 대한 검정결과 U/P는 ( $F_{(1,79)}=50.231$ ,  $p<.001$ )로서, DES는 ( $F_{(1,79)}=13.773$ ,  $p<.001$ )로서, PE는 ( $F_{(1,79)}=11.953$ ,  $p<.01$ )로서, EXPL는 ( $F_{(1,79)}=34.889$ ,  $p<.001$ )로서, PE-SC는 ( $F_{(1,79)}=12.304$ ,  $p=.01$ )로서, EXPL-NSC는 ( $F_{(1,79)}=32.418$ ,  $p<.001$ )로서 유의수준 .05하에서 단어빈도별 효과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A/R는 ( $F_{(1,79)}=0.211$ ,  $p=.647$ )로서, ERR는 ( $F_{(1,79)}=2.909$ ,  $p=.090$ )로서, PE-A는 ( $F_{(1,79)}=1.735$ ,  $p=.190$ )로서, PE-NSC는 ( $F_{(1,79)}=0.025$ ,  $p=.875$ )로서, EXPL-SC는 ( $F_{(1,79)}=0.045$ ,  $p=.833$ )로서 유의수준 .05하에서 단어빈도별 효과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3.2.3. 연령그룹×단어빈도 효과 분석결과

표 9. 연령그룹×단어빈도 효과

Table 9. Age group×Word frequency effects.

	제시유형 재조합	자유도	평균제곱	검정통계량 (F)	유의확률 (P)
U/P	1.625	3	0.542	1.133	0.338
DES	2.525	3	0.842	1.284	0.282
A/R	0.325	3	0.108	0.915	0.435
PE	2.769	3	0.923	1.621	0.187
EXPL	3.875	3	1.292	2.143	0.097
ERR	0.600	3	0.200	1.455	0.229
PE-A	0.269	3	0.090	0.307	0.820
PE-SC	2.519	3	0.840	3.748	0.012
PE-NSC	0.469	3	0.156	0.618	0.605
EXPL-SC	0.325	3	0.108	0.194	0.901
EXPL-NSC	2.250	3	0.750	1.240	0.297

연령그룹×단어빈도별 효과에 대한 검정결과 PE-SC

는 ( $F_{(3,79)}=3.748, p<.05$ )로서 연령그룹×단어빈도별 효과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U/P는 ( $F_{(3,79)}=1.133, p=.338$ )로서, DES는 ( $F_{(3,79)}=1.284, p=.282$ )로서, A/R는 ( $F_{(3,79)}=0.915, p=.435$ )로서, PE는 ( $F_{(3,79)}=1.621, p=.187$ )로서, EXPL는 ( $F_{(3,79)}=2.143, p=.097$ )로서, ERR는 ( $F_{(3,79)}=1.455, p=.229$ )로서, PE-A는 ( $F_{(3,79)}=0.307, p=.820$ )로서, PE-NSC는 ( $F_{(3,79)}=0.618, p=.605$ )로서, EXPL-SC는 ( $F_{(3,79)}=0.194, p=.901$ )로서, EXPL-NSC는 ( $F_{(3,79)}=1.240, p=.297$ )로서 유의수준 .05하에서 연령그룹×단어빈도별 효과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명사의 출현빈도와 명사의 정의하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명사의 출현빈도에 따른 명사의 정의하기 반응범주를 연령에 따라 분석하였다. 피험자의 정의반응 분석결과 명사의 출현빈도가 명사의 정의하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험자들은 저빈도어보다 고빈도어에서 더 친숙도를 보였고 고빈도어의 경우 친숙도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빈도어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고빈도어와 저빈도어의 친숙도 차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고빈도어보다 저빈도에 익숙해지는 것이 언어발달면에서 더 늦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험자들은 명사정의하기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속성과 분류명사를 사용하는 EXPL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언어사용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정보에서 나타난 반응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2]. 그리고 명사의 출현빈도가 명사정의하기에 중요한 영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빈도어 명사의 경우 정의하기에서 PE-A와 PE-SC, PE-NSC 범주보다 EXPL-SC, EXPL-NSC사용이 많았다. 이 결과는 저빈도어보다 고빈도의 경우 의미의 핵심요소인 속성과 분류명사의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명사정의에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오류반응이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고빈도와 저빈도의 경우 오류반응의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들을 제외한 피험자의 경우 고빈도어보다 저빈도어의 경우 오류반응이 많았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2]. 오류출

현빈도가 단어의 친숙도의 결과와 관련하여 친숙도의 차이가 더 적어지면서 오류의 출현빈도도 더 적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단어의 빈도와 단어의 정의하기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단어의 빈도와 단어의 정의하기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언어교육과 언어치료의 평가나 치료시에 어휘를 선택할 때 단어의 빈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어휘에서 단어의 정의연구가 필요하고, 명사 이외의 다른 품사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1-AM0056). 본 논문의 명사정의하기 반응범주의 코딩작업과 관련하여 이메일로 세밀한 지도와 도움을 주신 Ohio University의 Marinellie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 참고 문헌

1. S. Marinellie and C. Johnson, "Adjective definitions and the influence of word frequency," *J.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6, 1061-1076, 2003.
2. S. Marinellie and C. Yen-Ling, "The effect of word frequency on noun and verb definitions: a development study," *J.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9, 1001-1021, 2006.
3. 박경애, 김영태, "언어발달지체아동과 정상아동의 보통명사 정의하기 능력 비교," *언어청각장애연구* 5, 20-37, 2000.
4. 신지원, 황인아, 박은숙, "정상아동의 명사·동사·형용사 정의하기 능력 발달," 2002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03-211, 2002.
5. 김희수, 유은희, 정은정, "ADHD 아동의 연령 및 품사에 따른 낱말 정의하기 연구," *언어치료연구* 4, 165-185, 2006.
6. S. Marinellie & C. Johnson, "Nouns and verbs: a comparison of definitional style,"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3, 217-235, 2004.
7. 국립국어원, 2007 21세기 세종계획 최종성과물 말뭉치, 2007.
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연세한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8.

#### 저자 약력

##### •이 찬 종 (Chan-Jong Lee)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언어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문학사)